

인공언어학연구회 저 2011년 8월 19일 초판

인공언어학

인공언어학의 정의와 범주

●인공언어학의 정의

인공언어는 언어학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통시적인 이유와 공시적인 이유가 있다.

전자는 1866년에 파리언어학회가 인공언어에 관한 논문을 수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이유이다.

후자는 인공언어가 제작자의 자의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연언어의 연구와 똑같은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이유이다. 예컨대 유형론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기본어순은 SOV 이지만 인공언어는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연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유형론뿐만 아니라 대조언어학 등 다른 온갖 언어학의 부문에 있어서 자연언어의 연구를 통해 언어학이 밝혀내 온 성과를 뒤집을 수 있다. 이래서는 연구가 되지 않는다 하여 인공언어는 기피되는 경향에 있다.

인공언어학이란 그러한 와중에서 굳이 인공언어를 언어학의 범주로 삼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주지(主旨)는 ‘인공언어로 언어학을 하는 것’ 이다.

인공언어학은 2011년에 인공언어학연구회에 의해 제창된 학문이다. 단 실제로는 연구회가 발족되기 전에 200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같은 개념이 제창되고 있었다. 연구회의 대표가 대학·대학원 시절에 인공언어로 언어학을 연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인공언어학의 범주

- 언어학적 고찰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품질의 인공언어

언어학의 대상으로서 인공언어를 다루는 이상 연구 대상이 될 인공언어는 언어학의 성과를 현저히 뒤엎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언어학적으로 보아 부자연스럽지 않은 인공언어를 취급할 필요가 있다. 인공언어가 갖는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다’ 는 자의성을 가능한 한 배제한, 언어학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만들어진 인공언어만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언어로부터의 참조도가 높은 아포스테리오리 언어나 언어학에 충분히 입각하여 만들어진 아프리오리 언어가 범주에 든다.

또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는 언어일지라도 그 언어가 발전 도중이라거나, 갓 만들어졌다거나, 정보량이 지나치게 적은 등의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연구 대상으로서 감당해 낼 수 없다.

인공언어학에서는 ‘인공언어로 언어학을 한다’ 라는 주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어학적 고찰, 특히 대조언어학적 분석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품질의 인공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언어학적 고찰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인공언어란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 1: 해당 인공언어가 언어학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을 것. 자세한 언어학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인공언어 제작법을 참조
- 2: 해당 인공언어의 일본어 자료가 논문을 집필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존재하면서도 일본 국내에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구체적으로는 1만 단어를 넘는 단어장 형식이 아닌 사전과 더불어 문법과 음운론 등에 관한 상세한 교재가 서적 또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할 것
- 3: 최소한 10년 이상 사용된 실적이 있으며 대조에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을 가질 것

본 연구회 발족 시점에서 상기 조건을 만족시켰던 인공언어는 아르카와 에스페란토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언어학에서는 이들을 자연언어와 대조 가능한 인공언어로 간주한다.

· 톱의 밑고 당기기에서 보는 언어학의 비독립성

언어학자 중에는 인공언어를 연구 범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학문과 제휴하여 언어 현상을 해명하려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언어 현상은 반드시 언어학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학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언어학 이외의 분야를 이용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뜻이다.

즉 언어학은 언어 현상을 해명하는 것에 관해서는 독립된 학문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자 중에는 언어학만으로 언어 현상을 해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현실에 입각해 있지 않다.

사실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다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공언어학은 언어학의 비독립성을 인정하고 각 학문들과 연계하면서 언어 현상을 해명해 나가는 입장을 취한다.

언어학의 비독립성은 예컨대 톱을 밀고 당기는 것 등에서 볼 수 있다.

일본어에는 ‘톱을 당기다(ノギリを引く)’라는 콜로케이션이 있다. 그러나 ‘톱을 밀다’ 라는 콜로케이션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언어 현상은 실은 언어학만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일본에서는 톱을 당길 때 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구에서는 밀 때 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당김톱과 밀톱의 차이이다. 당김톱은 비교적 부드러운 삼나무 등의 재질을 자르는 데 사용한다. 때문에 일본이나 터키 등에서 채용되고 있다.

왜 일본어에는 ‘톱을 밀다’ 라는 콜로케이션이 없냐면 그것은 일본에서는 당김톱을 쓰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김톱을 쓰는 것은 삼나무 등을 자를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삼나무가 많다는 식생은 일본의 풍토에 따른 것이며, 삼나무를 자주 쓴다는 것은 일본의 문화에 따른 것이다. 즉 문화와 풍토라는 시점을 놓지 않으면 이 콜로케이션에 대해서는 해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 현상은 반드시 언어학만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풍토와 문화 등 언어학 이외의 관점을 감안하여 고찰하지 않으면 해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상으로부터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어학 이외의 시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어학은 언어 현상의 해명에 관해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또 당연히 그 점은 인공언어학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인공언어학은 언어학의 한 분야이지만 고찰을 할 때에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각 학문들과 함께 연구해 가게 된다.